



서주현 김수아 (정원. 영원) 2025년 5월 기도 제목 나눔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편 128:4-6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선교지에서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저희 가정을 통해 흘러나온 복음은 세대를 잇고 지역을 품으며 흔적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자손의 자손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자녀와 마음,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관계와 문화적 지혜로 사랑이 심겨지고 있습니다.

1.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

- 저희와 현지 가정 모두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워지며, 자녀들에게 믿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도록
-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사랑이 회복되도록
- 자녀들의 진로와 신앙의 여정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도록
- 정원과 영원이 중국 운남대학교 마지막 학기 논문을 성실히 마무리하고, 졸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 두 아들이 졸업 후 태국 대학원 과정을 위해 기도중입니다. 5월 30일까지 모든 서류 접수와 입학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은혜중에 입학이 결정되고 학업을 잘 감당케 하소서. 이 후 신학의 길을 결정한 아들이 흔들리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2. 현지 교회와 리더십 훈련을 위한 기도

- 5월 13-14일 프라까루나 교회에서 진행될 '태국 목회자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도록
- 지역 목회자들이 말씀과 교제를 통해 위로와 회복을 누리고, 사역의 실제적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 작은 교회들이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연합과 협력의 영을 부어주소서

3. 사역지 개척과 복음의 문을 위한 기도

- 무속신앙이 강한 리카이 마을 가운데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 마을 주민들과의 신뢰가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달되게 하소서
- 진리의 빛이 영적 어둠을 비추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 마을 가운데 임하도록
- 치앙라이 '탄압학교'를 향한 새로운 사역의 문이 열리도록
- 연결된 교사를 통해 학교와의 관계가 성실하게 발전되며, 문화적 접근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 복음을 드러내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시고, 이 학교를 향한 선교적 비전이 구체화되도록
- 문화적 접근을 통한 장기적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 직접적인 복음 제시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교육, 예술, 상담, 돌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소서
- 주님의 지혜와 인내로 한 걸음씩 씨앗을 심고, 열매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소서

4. 동역자와 언어 사역을 위한 기도

- 신실한 현지 태국인 동역자를 만나도록
- 비전과 마음을 함께 품고 동역할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주체적인 사역의 기반이 세워지도록
- 동역자 훈련과 제자 양육이 장기적 선교에 뿌리내리도록
- 태국어 복음 사역에 필요한 언어적 집중력과 은혜를 부어주소서
- 태국어의 깊이와 명확함이 더해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히 전달되도록
- 언어 능력 위에 성령의 지혜가 더해져,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여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